

GIST, '기후환경·에너지 대전'(KEET 2024) 참가 기후위기 핵심기술 및 탄소중립 기획사업 성과 선보여

- 에너지밸리기술원·차세대에너지연구소,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 대전(8월 28~30일)' 참가, 미래 에너지 분야 우수 연구 성과물과 에너지신산업 시제품 전시
- 차세대에너지연구소, "GIST의 차세대 에너지 기술과 지역 에너지 기업, 기관 및 지자체 연결 허브 될 것"... 에너지 분야 산·학·연 기술교류회(가칭) 10월 중 개최 예정



▲ 임기철 총장이 '2024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 대전' 개막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환경과 에너지 신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 대전(KEET 2024)'에 에너지밸리기술원*(원장 이광희·연구부총장)과 차세대에너지연구소*(소장 이상한)가 함께 참가하여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시제품 및 우수 연구성과물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수) 오후 열린 행사 개막식에는 임기철 총장이 참석해 '친환경 초화 꽃기'퍼포먼스에 동참하며 친환경에너지 전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경영' 의지를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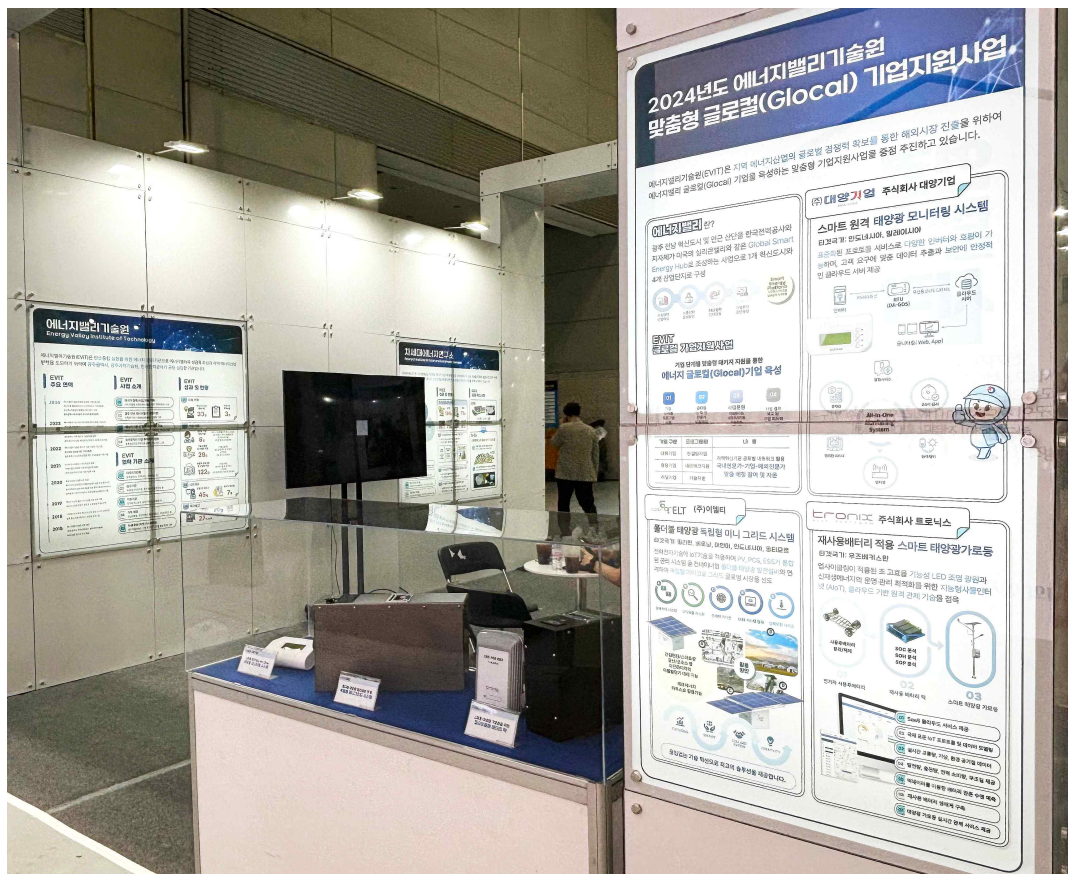
* 에너지밸리기술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전문기관으로서, 에너지밸리의 성공적 조성과 지역 에너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6년 광주광역시, GIST, 한국전력공사가 공동 설립한 기관이다. 최근에는 지역 내 에너지 현안 해결을 위한 기관 간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에너지 분야 지역 거점 중추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 **차세대에너지연구소:** 태양광 에너지 보급 확대와 산업성장을 주도할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2009년 설립되었다. 특히 유기 태양전지와 연료전지 및 촉매 분야에서 노벨 화학상을 받은 Alan J. Heeger 교수(미국), Gerhard Ertl(독일)와 각각 설립한 '히거신소재연구센터', 'Ertl탄소비움연구센터'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Imperial College London(영국), UCSB(미국)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 국경을 초월한 공동연구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는 AI, 에너지 저장 기술 등 연구 범위를 넓혀 미래 에너지 산업 지형을 만들어 가는 세계적 연구소로 발전하고 있다.

에너지밸리기술원은 산학연 협력을 통한 **과제기획사업** 및 **에너지 기업 투자유치** 성과를 **홍보**하였으며, 올해 중점 추진 중인 **맞춤형 글로컬(Glocal) 기업지원사업** 수혜기업의 다양한 시제품도 전시하여 **관람객의 호응**을 얻었다.



▲ 이광희 에너지밸리기술원장이 맞춤형 글로컬(Glocal) 기업지원사업 수혜기업의 시제품 설명을 하고 있다.



▲ 에너지밸리기술원이 맞춤형 글로컬(Glocal) 기업지원사업 수혜기업의 다양한 시제품을 전시하고 있다.

차세대에너지연구소는 ▲이종음이온 아지로다이트 고체전해질(김상륜 교수) ▲질소 도핑 다공성탄소 코팅 카본전극(박찬호 교수) ▲다층박막구조 제로에너지 냉각소재(송영민 교수) ▲삼차원 리튬 담지체(엄광섭교수), 대면적 유연 유기 태양전지 필름(이광희 교수) ▲대면적 반도체 광전극(이상한 교수) 등 **미래 에너지 분야의 우수 연구 성과물**을 선보였다.

특히 '다층박막 구조 제로에너지 냉각소재(송영민 교수-(주)포엘)'와 '대면적 유연 유기 태양전지 필름(이광희 교수-(주)리셀)'은 **GIST의 연구성과가 기업의 기술력과 만난 산학협력의 결실**이다.



▲ 차세대에너지연구소가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대전 (KEET2024)'에 참가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차세대에너지연구소 이상한 소장(신소재공학부 교수)은 "**에너지신산업의 확산은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차세대에너지연구소는 기존의 원천기술 R&D 중심 연구소에서 **산학협력 실증 중심연구소로 한 단계 더 도약** 할 것이며 향후 GIST가 보유한 차세대 에너지 기술과 지역 에너지 기업, 그리고 기관 및 지자체를 연결하는 허브로서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그 시작으로 공고한 협력체계를 만들고 수요 중심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에너지 분야 산·학·연 기술교류회(가칭)'를 10월 중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 분야 산·학·연 기술교류회(가칭)’는 지역 연구기관의 센터장급 전문가인 차세대에너지연구소 소속 겸직교수들을 중심으로 지역 내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인적·물적 인프라를 공유하고 공동 과제를 발굴하는 등 실질적 협력 프로젝트 모델을 탐색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대전(KEET 2024)’은 **호남권 최대 규모의 기후환경·에너지 전문 산업전시회**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주최하고 광주관광공사가 주관하여 전 세계 30개국에서 265개사 600 부스가 참가한 가운데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